

## 파주시사, 추석 앞두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기사입력시간 : 2025/09/26 [11:13:00]

박정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시사(지사장 전홍성)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촌통일시장에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나섰다.

작년, 올해

#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추가로 받아보세요!

### 농지이양은퇴직불이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어떤점이 좋을까요?

01

####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혜택

##### 매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1ha기준)



농지  
매도  
대금

##### 매도조건부임대

당장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40만원  
(1ha기준)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

02

#### 수령방법

보조금을 분할 또는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일시수령 시, 지급기간 별 최대 30% 차감

03

#### 약정 승계 가능

약정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잔여 약정기간만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승계조건 만족 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간 직접 매도 시에도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했다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84세까지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최대 4ha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이 새로 도입돼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파주시사는 이번 홍보를 통해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은퇴 대책을 안내하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 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aju Branch of the Gyeonggi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Branch Manager Jeon Hong-seong) promoted the "Farmland Transfer Retirement Direct Payment Program" at the Geumchon Unification Market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designed to help elderly farmers secure their retirement.

The "Farmland Transfer Retirement Direct Payment Program" aims to support elderly farmers in their retirement and assist young farmers in securing farmland.

Older farmers who transfer their farmland to young farmers or successors are eligible for a monthly subsidy. Direct sales between individuals, such as those selling directly to young farmers, are also eligible for the subsidy.

Eligible farmers are those aged 65 to 84 who have been engaged in farming for at least 10 years. They can apply for up to 4 hectares of farmland within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owned by them for at least three years or farmland that has been reorganized.

There are two application methods: "sale" and "sale-conditional lease."

The "sale" method provides support of 500,000 won per hectare (6 million won per year) per month for up to 10 years in addition to the farmland purchase price.

Notably, a new "lump-sum payment" method will be introduced starting in 2025, allowing subscribers to receive the subsidy all at once, allowing them to choose the option based on their financial situation.

The "sale-conditional lease" method provides a stable income of 400,000 won per hectare (4.8 million won per year) per month for up to 10 years, in addition to the direct retirement payment farmland pension and farmland rental fees.

The Paju Governor plans to use this promotional campaign to provide practical retirement plans to local elderly farmers and to support young farmers in establishing a farming foundation.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 경기서부](#)